

광주서 서울서...“민주주의 승리의 날” 전국이 환호



4일 오전 5·18민주광장에 모인 광주시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이 선고되자 환호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인용을 선고한 4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일대에서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기뻐하고 있다.

/서울=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5·18민주광장

“드디어 끝났구나” “윤석열 아웃이야!”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가 이뤄진 4일, 윤 대통령 파면을 기다리며 5·18민주광장으로 모여든 광주 시민들은 “기다려왔던 결실을 맺었다”며 환호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5·18 계엄 트라우마를 떠올렸던 광주 시민들이었던 만큼, 파면 순간 광주에서 터져나온 환호성은 그 어느 곳보다 크고 뜨거웠다.

이날 오전 10시,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은 오전 일찍부터 탄핵 선고 순간을 전광판으로 함께 보려고 모여든 시민들로 가득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함께 지켜보려는 시민들이 삼삼오오 모였고, 분수대 주변엔 5·18민주화운동을 떠올리게 하는 것들이 둘러세워졌다.

선고에 앞서 광장에서는 (사)백남기농민 기념사업회가 “파면행입니다”라고 외치며 우리밀 빵을 시민들에게 나눠주기도 했고, (사)실로암사람들 활동가들은 “줄을 서시오”라고 웃어

탄핵 기원 시민 아침부터 몰려 “위대한 시민혁명 해냈다” 함성

보이며 커피를 다화용기 컵에 따라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등 훈훈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시민단체와 자영업자, 학생 등 광장에 모인 다양한 사람들은 ‘윤석열 파면’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인증사진을 남기기도 했다. 그동안 시위현장에서 만났던 반가운 얼굴과는 밝은 인사를 나눴고, 처음 본 사람들도 같은 뜻으로 하나되며 금세 동행인이 됐다.

오전 10시 30분부터는 스피커를 통해 노래 ‘다시 만난 세계’가 흘러나오며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됐고, 몇몇 사람들은 노래를 따라부르며 ‘파면 추구’ 피켓을 흔들었다.

선고시간이 다가오자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숨죽인 채 한 마음으로 화면을 응시했다. 생중계 화면에 “파면”이라는 말이 나오자, 광장은 일순간 환호와 눈물, 박수가 터져나왔다. “마침내 승리했다”며 환호하는 시민부터 서로를 얼싸안고 눈물을 쏟는 이들과 한 마음으로 파면의 순간을 만끽했다.

이날 민주광장을 찾은 시민들의 표정엔 그간의 분노가 한 번에 씻겨내려간 듯한 후련함과 함께 새 시대에 대한 간절함이 함께 묻어났다.

시민 김재린(여·29)씨는 “너무 기다리던 날이라 마음이 벅차다. 집에서 봤으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환호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마침내 민주주의가 승리했다. 오늘을 계기로 새로운 대한민국이 찾아올 것”이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최강은 백남기농민 기념사업회 이사장은 “4개월간 잠 못 이루던 날들이 이제 끝났다. 당연한 일이 이제 이뤄졌다”며 “죄지는 자는 감옥으로 가고, 국민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북구 매곡동에서 온 양지영(여·52)씨는 “그동안 나라가 부끄러웠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부를 원한다”고 말했다.

정하린(여·47)씨는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의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해 광장으로 달려나왔다”며 “이제는 나라가 정상화되고 진짜 국민이 행복할 복지국가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헌재 파면 결정 이유는

대혼란 부른 계엄사태 5가지 쟁점 모두 위법

헌법재판소(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수호 책무를 저버리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해 중대한 법위반을 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회 탄핵소추안의 5가지 쟁점에 대해 모두 위법을 인정했다.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긴급권을 남용했다고 봤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4일 오전 11시 22분 헌재 대심판정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헌재는 먼저 탄핵소추 의결의 절차적 사항을 판단했다.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사안이라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법사위 조사가 없었던 점, 내란죄를 소추안에서 뺀 점 등 탄핵소추의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다.

헌재가 판단한 5가지 쟁점은 ‘12·3비상계엄선포’, ‘국회 계엄군 투입’, ‘포고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법조인 위치확인’ 등이다.

5가지 사항에 모두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다.

야당의 ‘이례적인 출탄행’이 있었지만 이는 전사·사변에 준하는 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헌재는 계엄 선포가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절차적 실체적으로 모두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국회에 계엄군 투입과 정치인 체포도 모두 인정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인원 끄집어내라고 지시해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면서 “군인과 시민이 대치하는 상황을 만들어 군의 정치적 중립성 침해·국군 통수권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포고령을 통해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체포대상에 전 대법원장·대법관을 포함한 것도 헌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서울 헌재 인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의 선고가 내려진 순간, 헌법재판소 앞은 ‘환희의 도가니’로 변했다.

불법적인 12·3 비상계엄 이후 122일 동안 윤 대통령 파면을 손꼽아 기다려온 시민들은 한 목소리로 “민주주의의 승리다”며 기쁨을 만끽했다.

4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은 선고 3시간여 전부터 전국 곳곳에서 모여든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오전 8시부터 10도 안팎의 쌀쌀한 날씨에도 집회 현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은 서로의 열기로 추운 줄을 몰랐다.

전국에서 상경한 버스가 헌재 인근부터 광화문 인근까지 줄줄이 이어져 있었으며 집회 현장에는 ‘내란세력 제압하라’ 피켓과 ‘친일파 청산’, ‘내란수괴 즉각파면’ ‘윤석열 파면 및 혁명’ 등의 팻말과 응원봉을 든 1020세대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세대가 몰려들었다.

시민들은 대형 전광판으로 생중계되는 뉴스 화면에 눈을 떼지 못했다. 일부는 ‘우리는 민주공화국이다’ 현수막에 릴레이 문구를 적기도 하고, 횡단보도에 분필로 ‘파면이어 오라’, ‘민중이 꿈꾸는 거리입니다’, ‘가짜이벤트 항쟁’, ‘적절 윤석열’을 적는 이들도 있었다.

오전 10시께에는 집회 현장 스피커를 통해 ‘임을 위한 행진

팻말과 응원봉 든 다양한 세대 얼싸안고 춤 추며 축제 분위기

곡’이 울려 퍼지면서 시민들이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했다. 또 ‘아모르파티’ 곡에 맞춰 ‘윤석열 파면’을 따라부르거나 피켓과 현수막을 흔들며 “우리는 승리하리라”, “8대0 만장일치로 파면하라”를 외치는 등 흥겨운 분위기에서 사전 집회가 이뤄졌다.

운명의 순간인 오전 11시, 생중계를 통해 헌법재판관이 판결문을 읽어내려가자 집회 현장이 한순간 잠잠해졌다. 시민들은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판결문 한 문장 한 문장을 들 때마다 머리위로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마침내 헌법재판관들이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낭독하자 헌재 앞 광장이 떠나갈 듯한 ‘와’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만세를 부르는 이도 있었고,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이부터 얼싸안고 춤을 추면서 기쁨을 만끽하는 이들과 헌재 앞의 축제 분위기나 다름없었다.

채원희(여·56·경기도 일산시 행신동)씨는 친구들인 김소연, 유흥기, 이형숙씨와 함께 지난 지난 밤샘 농성을 하고 자리를 지킨 끝에 파면 선고를 지켜보고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켰다”고 소리치며 얼싸안았다.

채씨는 “그토록 기다리던 파면이 돼 속이 시원하다. 12·3 계엄 이후 일이 손에 안 잡히고 일상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느껴 매일같이 절망감과 주발 집회에 참여해온 보람이 있다”며 “벅벅이 흐드러지게 핀 지금 앞으로 역사의 새 봄을 맞이할 것이다. 반드시 우리는 새 봄을 쓸 것이다”라고 말했다.

서울 관악구에서 온 이기호(42) 이두리(여·35)부부는 ‘민주주의의 적들을 남김없이 처단해 역사의 본보기로!’라는 현수막을 들고 밤부터 자리를 지켰다. 이씨 부부는 파면 선고가 나자 “지금까지 한 고생이 헛고생은 아닌 것 같아 말할 수없이 기쁘다”며 “8년 전 탄핵 과정보다 너무 험난했는데, 앞으로 해결할 일이 많겠지만 지금 정말 후련하다”고 감격했다.

방민지(여·23)씨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고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이 생각난다”며 “당연한 일이 이뤄지지 않을까봐 그동안 너무 무서웠다”고 눈물을 보였다.

광주 5·18민주화운동을 떠올린 이도 있었다. 구현지(여·23)씨는 “광주에서 5·18을 겪은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 제가 집회에 나갈 때마다 말리셨지만 오히려 5·18 정신을 생각해 집회에 나왔다”며 “오늘의 결과가 미래의 민주주의를 구할 것이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거다”고 파면을 반겼다.

/서울=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광주시장·전남지사 담화문

“시민이 지켜낸 민주주의, 더 단단하게 만들어가야”

강기정 광주시장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오늘부터 대통령 윤석열이 파면되었습니다.

위대한 시민이 해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가장 위헌적인 내란 세력을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막아냈습니다.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고 겨울 광장을 ‘민주주의 축제의 장’으로 만들고 극우로부터 민주광장과 금남로를 지켜냈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자랑스롭습니다.

윤석열 정부 3년은 대한민국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정치는 사라지고, 정치 보복만 남았습니다.

제조업의 경쟁력은 약화되었고, 트럼프 발 관세 폭탄으로 수출산업은 고군분투 중입니다.

1년 넘게 이어져 온 의료 대란은 의료와 교육 현장에 대혼란을 초래했고, 내란 세력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공격하고 있



습니다. 우리는 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달려나갑니다.

첫째, 유능한 ‘민주 정부’를 수립해야 합니다. 땅에 떨어진 국격과 국가의 기능을 회복해야 합니다.

둘째,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해야 합니다. 5·18을 배우고, 기억한 시민들이 계엄을 막아냈습니다.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통해 더 많은 민주주의자를 키우고,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셋째, 내란 세력을 엄정히 단죄하고 사회통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는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내란 세력이 우리의 헌정질서를 위협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더 단단한 민주주의’라는 산맥을 넘어야 합니다.

파면을 넘어 ‘민주 정부’ 수립과 ‘사회 대개혁’을 향해 함께 손잡고 나아가갑시다.

“우리 모두의 승리...다시 힘차게 도약해야 할 때”

김영록 전남지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오늘 헌법재판소는 전원 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해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헌법을 수호하고 정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한뜻으로 힘을 모아주신 위대한 국민의 승리입니다.

먼번히 이어 온 구국의 혼을 가진 우리 전남도민의 승리가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제 혼돈의 시대가 끝난 만큼,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다시 힘차게 도약해야 할 때입니다.

전남도는 온 도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전심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민생경제 회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도는 활력을 잃은 골목상권 회복과 건설경기 부양, 그리고 석유화학·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에는 획기적인 규모의 슈퍼 추경 편성을 촉구합니다.

둘째, 정부는 지방교부세 대폭 감축에 따른 지방재정확충 특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주십시오. 정부는 세수 결손의 부담을 지방에만 전가할 것이 아니라, 국채를 발행해 서라도 지방교부세를 지원하고 지방의 재정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특단의 대책도 마련해 주길 바랍니다.

셋째, 정부는 석유화학·철강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시행해 주길 바랍니다. 마지막

으로 정부는 미래 성장동력이 될 전라남도의 핵심 산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고강도 투자에 주길 바랍니다.

다음 주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100일째를 맞습니다. 정부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유가족 지원, 재발 방지를 담은 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전남도는 온 도민의 열정과 단결된 의지로 이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위대한 전라남도를 건설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의 희망찬 발전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